

〈神奴兒〉에 잠복된 민족 갈등과 이민족 혐오

이 지 은*

〈目次〉

- | | |
|-----------------------|-------------|
| I. 서론 | 2. 배금주의의 만연 |
| II. 작품에 잠복된 민족 갈등과 혐오 | 3. 호진성과 야만성 |
| 1. 가부장제의 균열 | III. 결론 |

I. 서론

元代는 몽골의 지배로 인하여 민족 갈등이 팽배한 시기였고, 특히 元末은 이러한 민족 갈등과 이민족에 대한 혐오가 최고조에 이른 시기였다. 본 연구는 원대 사회에 존재했던 이러한 갈등과 혐오가 元雜劇 특히 鬼神劇¹⁾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표출되었는지를 알아보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원대 귀신극은 시대적 배경을 주로 宋代로 설정하고 있으며, 시대적 배경이 송대이니만큼 몽골인이나 몽골 문화에 대한 직접적인 서술이나 비판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뛰어난 시대적 감수성을 지닌 극작가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몽골인과 몽골 문화에 대한 견해를 작품 속에 남겼으리라는 판단이다.

* 慶北大學校 人文學院 研究員

- 1) 원대 귀신극으로는 〈竇娥冤〉, 〈西蜀夢〉, 〈生金閣〉, 〈東窗事犯〉, 〈後庭花〉, 〈朱砂擔〉, 〈神奴兒〉, 〈盆兒鬼〉, 〈馮玉蘭〉, 〈昊天塔〉, 〈小孫屠〉, 〈碧桃花〉, 〈霍光鬼諫〉, 〈范張雞黍〉, 〈看錢奴〉 등이 있다.

본고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작품은 元末 明初에 익명의 작자에 의해 지어진²⁾ 〈神奴兒〉이다.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본 작품은 민족 갈등과 이민족에 대한 혐오가 최고조에 이른 시기에 지어졌다. 과거제도라는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사라져 버린 환경에서 문인들은 雜劇을 통해 사회에 대한 불만과 새로운 시대에 대한 염원을 표출하였다. 본 작품 역시 당시의 사회에 존재하던 민족 갈등과 이민족 혐오를 교묘하고도 은밀한 방식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작품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작품의 주인공은 神奴兒라는 소년이다. 신노아는 황제로부터 義門을 하사받은 유서 깊은 집안의 유일한 後嗣이다. 그런데 신노아의 숙모 王臘梅는 집안의 가산을 차지하기 위하여 신노아의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남은 재산을 강탈하기 위하여 신노아를 교살한다. 죽어서 귀신이 된 신노아는 包拯을 찾아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포증은 진범을 찾아내 처벌한다. 작품은 이처럼 신노아라는 소년이 친족의 손에 살해되어 귀신이 되는 이야기를 통해 당시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그리고 그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음을 고발하고 있다. 그리고 살인자 왕납매의 모습에 이민족의 형상이 있음을 은연중에 시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원대 극작가들은 이민족과 이민족 문화에 대한 견해를 직접적으로 표출하지 않고 은밀한 방식을 통해 전달한다.³⁾ 본고에서는 이러한 특징에 착안하여 작품에 잠복된 민족 갈등과 혐오를 읽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작품이 지닌 사회극으로서의 의미가 조금이나마 드러날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2) 郭建, 〈神奴兒大鬧開封府〉(《文史天地》, 2014), 10쪽.

3) 이는 현재까지 살펴본 〈竇娥冤〉, 〈生金閣〉, 〈後庭花〉, 〈盆兒鬼〉, 〈馮玉蘭〉, 〈碧桃花〉, 〈看錢奴〉, 〈神奴兒〉 등 8종의 귀신극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II. 작품에 잠복된 민족 갈등과 이민족 혐오

1. 가부장제의 균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은 宋代이며, 공간적 배경은 汴梁에 위치한 李德仁의 집이다. 이덕인은 아우 李德義와 함께 분가를 하지 않고 함께 생활한다. 이들의 가문은 대대로 분가를 하지 않고 우애를 지키며 살아온 까닭에 황제로부터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이덕인은 유가의 규범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員外郎이고, 그의 아내 李阿陳은 남편의 뜻에 순종하는 현숙한 아내이며, 두 사람의 사이에는 아들 신노아가 있다. 아우 이덕의 역시 원외랑이지만, 늘 술에 취해 있는 까닭에 집안을 잘 돌보지는 못한다. 이덕의의 아내 왕납매는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존재로, 두 사람의 사이에는 자식이 없다. 이러한 가정에서 왕납매가 재산분할과 분가를 요구하면서 가정의 균열이 시작된다. 작품은 이를 통해 안정적이던 가정이 불안정하게 변화하는 실상을 표현하고 있다. 불안정한 가정이란 이민족 지배를 통해 붕괴된 가부장제의 또 다른 모습이며, 이는 당시 원대의 지배층인 몽골인과 연관이 있다고 하겠다. 작품은 이덕의가 왕납매와 함께 등장하여 자신과 가족 구성원에 대해 소개하면서 시작된다.

이덕의 : 소생은 汴梁 사람으로, 육친으로는 다섯 명의 가족이 있습니다. 형님은 이덕인이라 하고, 소생은 이덕의라고 하며, 형수님은 陳氏이고, 아내는 王氏이며 字는 臘梅입니다. 저는 슬하에 후사를 보지 못했으나, 형님에게는 자식이 있는데 이름은 신노아라고 합니다. 두 집안이 저 아이 하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집안의 가산은 모두 형님과 형수님이 관리하고 계십니다. 형님과 형수님이 마음을 많이 써주셔서 저와 아내는 갓 지은 밥을 먹고 갓 만든 옷을 입고 있으니 어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4) (제1절)

4) (李德義云) 小可汴梁人氏, 嫡親的五口兒家屬, 哥哥李德仁, 小生李德義, 嫂嫂陳

이덕의는 형과 형수의 보살핌을 받으며 풍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술하고 있다. 그의 자술에서 그는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지니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그에게 있어 후손을 잇는 것은 큰 관심사가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덕의는 전통의 가부장적 가족주의의 관념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사람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가부장적 가족주의에서 가족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고 또한 자손 대대로 내려가는 혈연관계를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혈연은 남자를 통해, 즉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통해 연속된다. 그래서 이런 문화에서는 아들을 우선하게 되고 후손을 잇는 일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이덕의는 후손을 잇는 일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다. 이러한 태도는 왕남매에게서도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다.

이어지는 왕남매의 자술은 다음과 같다.

왕남매 : 여보, 요즘 아주버님과 형님께서 당신이 매일 술에 빠져 생계를 돌보지 않는다고 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둘이 개인적으로 재산을 축적한다고도 한마디 하셨어요. 게다가 당신은 주로 집밖으로 나가 도느라 집에는 붙어있질 않아서 요리와 주방일은 몽땅 내가 돌보고 있어요. 우리 아주버님과 형님은 대문 밖으로도 나가 질 않으시는데, 어쩔 그렇게 여유로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두 사람이 입는 것은 모두 낡은 옷에 낡은 저고리인데, 아주버님 부부는 능라로 온필을 다 써서 옷을 만드신다고요. 당신이 제 말에 따르기만 한다면 이 가산을 쪼개서 우리 둘이 나가서 따로 살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요?⁵⁾ (제1절)

氏, 渾家王氏, 小字臘梅. 我根前無出, 哥哥有個孩兒, 喚做神奴兒. 俺兩房頭則覷着那孩兒. 這個家私, 都是哥哥、嫂嫂掌把着. 他十分操心, 我與二嫂吃着現成衣飯, 好不快活也.

- 5) (搵旦云) 李二, 如今伯伯、伯娘說, 你每日則是貪酒, 不理家計. 又說俺兩口兒積攢私房, 你又多在外少在家, 一應廚頭灶腦, 都是我照顧. 俺伯娘房門也不出, 何等自在. 俺兩口兒穿的都是舊衣舊襖, 他每將那好綾羅絹帛, 整匹價拿出來做衣服穿. 你依着我言語, 將這家私分開了, 俺兩口兒另住, 可不還快活那.

왕납매의 대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녀가 남편과는 달리 가정생활에 상당한 불만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다. 첫 번째 불만은 바깥으로 도는 남편을 대신해서 요리와 주방일을 전담하는 것이며, 두 번째 불만은 이덕인 부부와의 비교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이다. 첫 번째 불만에서 그녀가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두 번째 불만에서 그 원인이 경제적인 가치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왕납매는 요리와 주방일을 전담하는 것, 즉 가부장제에서 여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 반감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유가 사상은 가정의 질서를 중시하며, 가족 구성원 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을 강조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편은 가정을 외부적으로 지키고 경제적 책임을 다하며, 아내는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낳고 기르는 역할을 맡는다. 이 사회에서 남성은 가치 체계의 상위를 차지하며 이성과 지성, 논리, 정신, 문명, 적극성을 상징한다. 반면, 여성은 이분법적 가치 체계의 하위 질서에 위치하며 감성과 육체성, 자연, 수동성, 의존성을 상징한다. 이러한 질서에 따라 여성과 남성의 영역할이 발현된다. 남편은 가정 외부에서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아내는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가사를 담당하는 것은 가부장제의 규율이다. 그러나 왕납매는 이러한 규율에 따르기를 거부한다. 왕납매는 아이를 낳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으며, 요리와 주방일을 담당하는 것에 반감을 지니고, 집안의 가장인 이덕인의 뜻에 따르는 것도 거부한다. 왕납매의 자술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가부장적 가족주의에 순응하지 않는 여성의 모습이다. 왕납매는 가부장제에 반대의 기치를 들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를 파괴하기를 꿈꾸며 분가를 요구한다.

이덕의와 왕납매 두 사람의 자술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몽골의 가족관이다. 몽골인이 지향하는 가족관은 가부장적 가족주의와 대치된다. 한 지역에 정착하여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는 농업 민족이 아닌, 어디든 갈 수 있는 유목민족의 특성상 모였다가 해체되기를 반복하기 때문이다. 몽골 문화권에서 가족이란 사회적 필요에 의해 구성되고 해체되는 집단이다. 이와

관련하여 징기스칸 가문의 일화를 참고할 수 있다.

몽골 사회는 생부보다는 사회적 父性을 더 높이 쳤다. 만약 어떤 남자가 어떤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면 부족은 그 아이를 그 사람의 아들로 인정했다. 예수게이 조상들의 가계를 살펴보면 생부의 계통이 끊어진 적이 여러 번이었으나, 밖에서 데려온 아이는 그 가계 혹은 그 씨족의 정식 구성원으로 인정되었다.⁶⁾

여기서 예수게이는 테무진 즉 징기스칸의 친부를 가리킨다. 예수게이는 몽골 왕족 보르지긴족의 후예로, 테무진이 9살이 되던 해 그의 부족과 오랜 불화 관계에 있던 타타르족에 의해 독살되었다. 예수게이는 아들 테무진의 배우자를 정하러 옹기라트 부족의 족장을 만나 그의 딸 보르테를 테무진의 약혼자로 정하고 오던 길에 타타르족의 막사에서 며칠 보내게 되었다. 그러나 몽골 부족이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한 타타르족은 예수게이를 손님으로 받아들였다가 독살하였다.⁷⁾ 예수게이가 사망하자 부족 사람들은 예수게이와 경쟁자 관계였던 타이치우트 일가의 사주를 받아, 예수게이의 미망인 호엘룬과 그 자녀들이 지도력을 발휘하기에는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고 기회를 이용하여 이들을 추방했다.⁸⁾ 이로 인해 테무진의 영세한 가문은 유목민의 일상 음식인 양고기와 우유는 전혀 먹지 못하고 풀뿌리와 생선으로 연명하는 극심한 가난을 경험했다. 이처럼 몽골 제국을 이룩한 징기스칸의 어린 시절을 살펴보면 필요에 의해 가족을 이루는 몽골인의 관습에 따라 부족에서 쫓겨나 어려운 세월을 보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몽골 문화에서는 형보다는 막내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는

6) 잭 웨더포드 지음, 이종인 옮김, 《징기스칸, 신 앞에서 평등한 제국을 꿈꾸다.》(서울: 책과 함께, 2017), 47쪽.

7) 그후 테무진의 종조부 쿠투라 칸의 사후 보돈차르씨족에서는 통솔력을 갖춘 인물이 나타나지 못했고, 몽골은 예수게이의 가문인 키야트 씨족과, 암바가이 칸의 직계인 타이치우드 씨족, 그밖에 몇몇 부족으로 분열되었다.

8) 암바가이 칸의 살아 있던 두 부인 역시 호엘룬과 자녀들에게 비호의적이었다. 노파 1명 만이 이들을 불쌍히 여겼으나 무시되었다.

유목경제 및 재산상속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⁹⁾

스스로 후손을 생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조카를 돌보는 것에 만족하는 이덕의의 태도와 집안의 만형인 이덕인을 중심으로 하는 가부장제의 규율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분가를 하려는 왕납매의 태도는 바로 이러한 몽골의 가족관과 관련이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몽골 사회에서는 그 어떤 관계보다 아내와 남편 사이의 관계가 중시된다. 부부는 가장 가까운 사이면서도 헤어지면 가장 무서운 적이 되기 때문에 친족을 형성하는 데 가장 핵심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¹⁰⁾ 분가를 하자는 왕납매의 요구에 이덕의가 반대하지 않는 것도 바로 이러한 몽골 문화를 반영한다고 하겠다. 종합해 볼 때 왕납매는 몽골인이거나 극도로 몽골화된 한인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덕의는 어느 정도 몽골 문화에 익숙해진 몽골화된 한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배금주의의 만연

이덕인, 이야진 부부는 이덕의, 왕납매 부부와 대비를 이루는 인물로서, 작품에서 전통적인 漢人을 상징한다고 하겠다. 이덕인이 아내 이야진과 함께 등장하여 자신과 가족 구성원에 대해 소개하는 대목은 다음과 같다.

(正末이 李德仁으로 분하여 大旦 陳氏와 함께 등장한다.)

이덕인 : 저는 성이 李氏이고, 이름은 德仁입니다. 아내는 陳氏이고, 소생으로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날은 마을의 수호신에게 제사를 올리는¹¹⁾ 날이어서 아이의 이름을 神奴兒라고 지었는데, 지금은 열 살이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이덕의라는 동생이 있고 동생은 왕씨를 아내로 얻었는데 제수씨는 좀 악독합니다. 동서끼리

9) 박환영, 《몽골 유목문화 연구》(서울: 역락, 2010), 20쪽.

10) 박환영, 위의 책, 20쪽.

11) 농촌에서 가을걷이가 끝난 뒤 마을의 수호신에게 집단으로 제사 지내는 일을 가리킨다.

불화하고, 늘 말썽을 일으키지요. 조부님 이래로 우리 집은 삼대째 분가를 한 적이 없기에 義門을 하사받은 이씨 가문입니다. 부인, 제수씨가 말발이 드세니, 당신이 우리 부모님의 체면을 봐서라도 좀 양보를 해주시오.

이아진 : 당신 말씀이 맞아요. 제가 어찌 동서와 같은 식견을 지니겠어요?¹²⁾
(제1절)

이덕인은 가족 구성원에 대해 언급하면서 왕납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 이덕인의 이야기에 따르면 왕납매는 이아진과 불화하며 늘 말썽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말발이 드세어서 관리하기가 힘든 인물이다.

반면 이아진은 이런 왕납매와는 매우 상반되는 성향을 지녔다. “제가 어찌 동서와 같은 식견을 지니겠어요?”라는 이아진의 말에서 두 사람의 성향이 대비를 이룬다는 사실과 함께 두 사람 사이에 이미 상당한 갈등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덕인의 자술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仙呂】

【點絳脣】

이덕인 : 나는 어려서부터 마음이 정직하고,
돈을 버는 것은 할 줄 모르고,
그저 집안을 다스리는 것만 배웠소.
평범해도 잘 살 수 있으니,
황금을 귀중히 하라고 하지 마시오.

12) (正末扮李德仁同大旦陳氏上) (正末云) 自家姓李, 雙名德仁, 渾家陳氏, 所生一子, 當孩兒生時, 是個賽神的日子, 就喚孩兒做神奴兒, 今年十歲也. 我有個兄弟是李德義, 娶的王氏. 則我那兄弟媳婦兒, 有些乖劣. 他妯娌不和, 他常是鬧. 自祖父以來, 俺家三輩兒不曾分另, 敕賜義門李家. 大嫂, 俺兄弟媳婦口強, 你讓他些兒, 看俺父母的面皮. (大旦云) 你說的是, 我怎麼也與他一般的見識? (正末唱)

【混江龍】

사람의 한 평생 생각해 보면,
 요즘 부자는 누가 명칭하게 살리오?
 어제는 용모가 수려했으나,
 이제는 허리도 굽고 고개도 숙여졌구려.
 창밖에는 태양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연회석 앞 꽃 그림자 아래로 옮겨갔구려.¹³⁾ (제1절)

이덕인은 어려서부터 정직한 마음을 품고 돈을 버는 것은 할 줄 모르고 집안을 다스리는 것만 배웠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평범함의 가치를 숭상하며 황금으로 상징되는 물질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의 삶의 태도는 전통 유가적 규범에 기초한 것으로, 검소함과 소박함을 숭상하는 유교의 정신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상은 변하고 있으며, 그는 변화하는 시대에 순응하지 못하는 구세대로 밀려가고 있음을 스스로 감지하고 있다.

소박함의 가치가 퇴색되는 시대적 분위기는 아들 신노아의 등장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덕인은 서당에 간 신노아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이덕의 : 부인,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이가 아직 공부를 마치고 오지 않는 것이요?

이아진 : 이제 곧 아이가 올 것입니다.
 (아이로 분장한 신노아가 등장한다.)

신노아 : 저는 신노아라고 해요.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밥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 어머니, 다녀왔어요.
 (신노아가 울면서 인사를 한다.)

이아진 : 아가야, 잘 다녀왔느냐. 그런데 왜 우는 것이냐?

신노아 : 어머니, 친구들이 제가 화려한 저고리를 입지 않는다고 놀렸어요.

13) 【仙呂】【點絳脣】我可也自小心直，使錢不會，學經紀。但能勾無是無非，便休說黃金貴。【混江龍】想爲人一世，如今這有錢的誰肯使呆癡？昨日個眉清目秀，今日個便腰屈頭低。窗外日光彈指過，席前花影座間移。

이덕인 : (唱) 아이가 애교를 부리고,
 어리광을 피우며,
 마음으로 투정을 부리고,
 눈은 흘겨보며,
 손으로 엄마를 때리며,
 가슴 아프게 슬퍼하네.
 내 이 손수건으로 뺨의 눈물을 닦아 주리니,
 화내지도 말고 성내지도 말고,
 그렇게 슬퍼하지도 말거라.
 (白) 부인, 색깔이 있는 비단을 골라 겹옷을 만들어 아이에게 입혀
 주시오.¹⁴⁾ (제1절)

서당에서 돌아온 신노아는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며 울음을 터트린다. 신노아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화려한 저고리를 입지 않았다고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화려함을 추구하는 당시 사람들의 심미관을 발견할 수 있다.

반면 전통 유교는 소박함을 숭상한다. 외면의 화려함보다는 내면의 순수함을 높이 여기기 때문이다. 유교는 인간의 이상을 자신의 힘으로 현실에서 실현하려는 인본적 현세주의다. 따라서 유교는 彼岸과 超越을 지향하는 종교와는 크게 다르다. 유교의 이상은 인간의 욕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인간이 천성적으로 타고난 덕성을 잘 갖고 닦아 대인군자가 되어 천지 만물과 함께 어우러져 도덕적 이상 세계를 건설하는 것이므로 그 목표는 어느 종교보다도 높고 그 목표에 이르는 길 또한 어떤 수행보다도 고되고 먼 것이었다. 도교와 불교는 일정 부분 현세를 부정하고 자기 세계나

14) (云) 大嫂, 這早晚怎生不見孩兒下學來? (大旦云) 孩兒這早晚敢待來也。(徠兒上, 云) 自家神奴兒便是。下學家中吃飯去。奶奶, 我來家了也。(徠兒做哭, 見科) (大旦云) 孩兒, 你來了也, 卻爲甚麼啼哭? (徠兒云) 奶奶, 一般學生每, 都笑話我無花花襖子穿哩。(正末唱) 見孩兒撒嬌旎, 放嬌癡, 心鬧吵, 眼乜嬉, 打阿老, 痛傷悲。我把這手帕兒搵了腮邊淚, 省可里着嗔着惱, 你休那等自跌自推。(云) 大嫂, 揀個有顏色的段子, 與孩兒做領上蓋穿。

경지로 나아가는 길이 있지만 유교는 끝까지 현세를 버리지 못하고 바로 그 현세를 이상 세계로 교화해야 하므로 숙명적으로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뇌하게 마련이다. 현세를 이상 세계로 교화시키고 인간의 욕구를 자제하는 행위가 바로 소박함으로 실천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덕인이 마주하는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소박함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회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화려함을 추구하는 몽골 문화이다. 몽골인들은 화려한 색깔과 복식을 숭상한다. 몽골인의 화려한 복식은 고려 시대 사람들의 기록에도 찾아볼 수 있는데, 실제로 몽고의 복식은 고려의 복식에도 큰 영향을 줄 정도로 상당한 미적 수준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⁵⁾

몽골인이 입었던 복장은 《朴通事諺解》나 《老乞大諺解》에도 묘사된 帖裏의 모습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매우 화려하다.¹⁶⁾ 몽골인은 오방색의 사용을 즐겼고, 그런 습속은 지금도 남아있다. 작품은 이러한 몽골인의 복식 문화가 당시 어린이들에게도 널리 퍼져있으며, 이러한 문화는 전통의 관념과는 대치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서당 친구들이 신노아가 화려한 저고리를 입지 않는다고 놀린 것과 관련하여, 이덕인은 아내에게 비난을 골라 신노아에게 겹옷을 만들어 주라고 부탁한다. 신노아를 통해 이덕인은 변화하는 세상과 맞닥뜨리고 있다.

15) 安鼎福의 《東史綱目》에 따르면 고려 시대 당시 몽고의 복식은 유목 기마 생활 및 원정 정복 정책에 알맞도록 활동이 편하게 디자인되고 金絲를 넣어 짜여진 직물이 많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高宗 16년의 기록은 권력층이자 무인들의 무리인 都房에서 이러한 몽고의 복식을 흉내내어 자신들의 지위를 뽐내려 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몽고 침략 이전의 일이므로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고려인 중 일부 계층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이처럼 강압에 의해 서가 아니라 자의적으로 몽고의 복장을 입은 사람이 있을 정도로 몽고의 복식은 미적 수준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6) 羅, 紵紗, 織金과 같은 고급 직물에 가슴에는 胸背를 달고 蟒龍 등을 織金하거나 五彩로 수를 놓은 화려한 의복으로, 이러한 사실은 현존 유물에 사용된 직물을 고찰함으로써 확인된다. 김문숙, 〈13~14세기 고려복식에 수용된 몽고 복식에 관한 연구〉(몽골학, 2004), 226쪽.

3. 호전성과 야만성

왕남매와 이덕이가 적극적으로 재산분할과 분가를 요구하면서 가족의 갈등은 극에 이른다.

왕남매 : 여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집안의 가산을 분할하고 분가를 해야 해요.

이덕인 : 아우야, 이 집의 가산을 분할하고 분가를 하겠다는 것은 부모님의 유언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의 가산과 집은 결단코 나눌 수 없느니라.

왕남매 : 여보, 형님의 말을 믿지 마세요. 어쨌든 오늘 가산을 분할하고 분가해야만 해요.¹⁷⁾ (제1절)

분가를 하겠다는 동생 부부의 요구에 이덕인 역시 강경한 자세로 맞선다. 분가를 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것은 부모님과 조상님의 유훈이기 때문이다. 이덕인은 아우를 달래며 마음을 돌이키려 노력한다.

이덕인이 지키려는 가정이란 가부장제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제도로, 큰 사회의 거울이며 또한 개인과 사회를 연결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개인과 사회구조 간의 매개자로서의 가정은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권위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 통제와 순응을 가져오게 하며, 이처럼 가정은 가부장제 사회의 기본적 도구, 기초 단위로서 원형을 이룬다. 국가의 대리 역할을 하는 가정은 그 구성원으로 하여금 사회에 적응하고 순응하도록 격려할 뿐만 아니라, 가장을 통하여 그의 백성을 통치하는 가부장제 국가 정부의 한 단위로서 행동하게 한다.¹⁸⁾ 가부장제에서 집은 가장으로 대표되는 남성이

17) (搢旦云) 李二, 好共歹今日務要把家私分另了罷. (正末云) 兄弟, 不爭分另了這家私, 不違悖了父母的遺言? 這家私斷然分不的. (搢旦云) 李二, 不要信他, 好共歹今日務要把家私分另了罷.

18) 케이트 밀레트, 정익숙·조정호 공역, 《성의 정치학》(서울: 현대사상사, 1996), 57쪽.

주인인 장소이다. 가장은 미성년자인 자식과 아내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을 돌보아야 하는 책임과 이에 기반한 권력을 소유한다. 따라서 왕납매와 이덕의의 요구는 단순히 더 많은 돈과 자유를 차지하려는 개인의 욕망이 아니라 가부장제에 대한 도전의 의미를 지닌다.

이덕인은 이들의 도전에 굴복하지 않고 아우를 타이르며 설득시키려 노력한다.

【寄生草】

이덕인 : 나와 아우는 친형제가 분명하고,
서로 의형제를 맺은 것이 아니거늘,
아우가 오늘 모르는 사람이 일부러 알게 된 것처럼,
가족이 아닌 사람이 가족이 된 것처럼 구는구나.
아우야,
아우는 어찌 이 형의 뜻을 알지 못하느냐?

왕납매 :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주버님이 시비를 거시네요. 여보, 이래도 안 때리시겠단 거예요?

이덕인 : (창) 아우가 소매를 걷고 팔뚝을 드러낸은 무얼 위함인가?
괜히 이웃집의 웃음거리가 되고,
친척과 이웃에게 책이나 잡히겠지.¹⁹⁾ (제1절)

왕납매가 이덕의에게 형을 공격하도록 지시하자, 이덕의는 왕납매의 하수인이 되어 형을 공격한다. 열위의 구성원인 왕납매가 우위의 가장인 이덕인을 공격하면서 이들의 관계는 시혜자와 수혜자의 관계에서 포식자와 피식자의 먹이사슬로 전락한다. 이 끔찍한 비극을 막아줄 수 있는 중재자는 부재한다.

작품은 이를 통해 물질에 집착하는 인간의 욕심이 어떻게 주변 사람들

19) 【寄生草】我和你須是親兄弟，又不是廝認義。你今日不相識的故意爲相識，你便可不親的結托爲親戚。兄弟也，你可怎生全不知盡讓您這哥哥意？(搵旦云)俺倒不言語，他倒說長道短的。李二，你還不打他哩。(正末唱)你這般揎拳捋袖爲因何？枉惹的街坊每恥笑，着親鄰每議。

을 비인간화시키며 파멸에 이르게 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돈에 대한 집착은 인간성 결여를 낳고, 인간적인 가치들은 부정된다. 형제애와 가정에 대한 존중이 하급으로 취급을 당하는 장면에서 인간적인 가치들이 어떻게 비하되는지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그녀의 폭력성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왕납매 : 아주버님 말씀은 조상 삼대가 재산분할을 하거나 분가를 한 적이 없고, 부모님의 유언을 어기는 것이 걱정이라는 거죠. 안된다면 없다면 어쩔 수 없죠. 이게 다 형수님이 형제가 사이 좋게 지내지 못하도록 부추겼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이제 아주버님더러 형수님을 버리라고 하면, 그럼 저는 재산분할을 하지 않을게요. 이것이 바로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취하는 것이죠.

이덕의 : 형수님은 형님이 어릴 때 맺어진 본처인 데다 유책 사유도 없으니, 어찌 이혼을 하라고 할 수 있겠소?

(왕납매가 이덕의를 때린다.)

왕납매 : 내게 다 생각이 있으니, 나만 따르라고요.

이덕의 : 그럼 어쩔 수 없지. 당신 뜻에 따르겠소.²⁰⁾ (제1절)

왕납매는 이덕인 부부의 이혼을 강제하며 이 과정에서 남편에게도 직접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폭행을 당하는 이덕의는 왕납매에게 반항을 하기는 커녕 왕납매의 뜻에 굴복한다. 이덕의의 모습에서 남편으로서의 위엄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폭력에 굴복한 이덕의는 가정불화의 원인을 형수에게 돌리며 형에게 형수와 이혼할 것을 요구한다.

이덕의 : 형님, 숨김없이 말씀드리자면, 우리 집안이 삼대째 재산분할과 분가를 하지 않은 것은 부모님께서 남기신 유언이므로 제가 어찌 감

20) (搽旦云) 他說道祖先三輩兒不曾分另這家私, 怕違了父母的遺言. 不分便也罷. 都是那嫂嫂搬調的您弟兄每不和, 你如今着他休棄了嫂嫂, 我便不分這家私. 這的是棄一壁兒就一壁兒. (李德義云) 他是哥哥的兒女夫妻, 又無罪犯, 怎生着休了他? (搽旦打李德義科, 云) 我有主意, 你則依着我者.

히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우리 집안이 화목하지 못한 것은 모두 형수님이 어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님께서 지금 당장 형수님을 버리신다면 저는 분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형님께서 만약 형수님을 버리지 못하시겠다고 하면 분가를 하겠습니다. 형님, 형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이덕인 : 아우, 폐하께서 義門을 하사하신 이씨 집안은 조상 삼대가 분가를 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아우가 내게 형수를 버리라고 한다면 그건 어렵지 않다. 하지만 紙筆硯墨이 하나도 없으니 어떡하겠는가?

이덕의 : 부인, 우리 형님이 종지와 붓이 없다고 하시는군.

왕남매 : 저한테 신발 본뜨는 종이랑 꽃을 그리는 붓이 있어요. 모두 준비를 해놨어요.

이덕의 : 형님, 지필연묵이 모두 마련되었습니다.

이덕인 : 아우, 내가 좋은 날을 택일하여 형수와 이혼하겠네.

왕남매 : 子丑寅卯..., 오늘이 딱 좋아요. 오늘 일진이 굉장히 좋으니 어서 쓰세요, 어서 쓰시라고요.²¹⁾ (제1절)

이혼을 하라는 아우의 요구에 이덕인은 지필연묵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거부하려 하지만 왕남매는 이미 모든 도구를 마련해 놓고 이혼을 촉구한다. 여기서 보이는 왕남매는 타인의 입장에서 그 어떤 공감도 하지 못하는 인물이다. 왕남매에게 있어 남편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용하는 대상이며, 이덕인은 자신에게 더 많은 돈을 분배해야 할 존재이며, 이야진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사라져야 할 대상이다. 이혼장을 쓰고 난 후 이덕인은 결국 화병으로 쓰러진다.

21) 哥哥，實不相瞞，這家私三輩兒不曾分另，是父母遺留的言語，俺怎敢違拗。這個也罷。俺家中不和，都是嫂嫂不賢慧。你如今休棄了嫂嫂，我便不分這家私；你若舍不的嫂嫂，便分另了這家私，哥哥你心下如何？(正末云) 兄弟也，俺是敕賜義門李家，祖傳三輩兒，不曾分另這家私，你要我休了嫂嫂，可也容易，爭奈紙墨筆硯俱無。(李德義云) 二嫂，咱哥哥說無紙筆。(搵旦云) 我這裏有剪鞋樣兒的紙，描花兒的筆，都預備下了。(李德義云) 哥哥，紙墨筆硯都有了也。(正末云) 兄弟也，我選個好日子休你嫂嫂。(搵旦云) 子丑寅卯，今日正好。則今日是大好日辰，寫了罷，寫了罷。

이덕인 : 아우야, 아우는 부모님이 남기신 유언을 듣지 않고, 오늘 분가를
 하겠다고 하는구나. 죽어서 황천길에 가서 무슨 면목으로 부모님
 의 얼굴을 뵈겠느냐. 어찌 화가 나서 죽지 않을 수 있으랴!
 (이덕인이 화를 못 참고 쓰러진다.)
 이아진 : (곡하며) 여보, 정신 차리세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이덕의 : 형님, 정신 차리세요! 어떻게 되신 거죠?
 (이덕인이 정신을 차린다.)

【賺煞尾】

이덕인 : 항상 소송을 하려는 마음을 품고,
 사람을 고소하려고 준비했구나.
 소장을 물병의 물처럼 채우다니,
 나의 친형제가 싹땀이 되었구나.
 왕납매 : 만약 제가 괴롭혔다면, 머리 위의 하늘이 굽어보시겠죠.
 이덕인 : (唱) 너는 훌륭한 가문의 조상님이 남긴 유언을 기억하거라,
 지금 누구를 위해 시뻘거리를 찾느냐,
 맑디맑은 青天은 속일 수 없을 것이니,
 네가 그렇게 양심을 속이고 나쁜 일을 한다면,
 그렇게 거역하고 불효한다면,
 (云) 인간 세상에서 속삭이는 말도 하늘은 우렛소리 들듯 잘 알고
 있으니, 인과응보가 없을 거라고 장담하지 말거라.
 (唱) 다만 빨리 오는가 늦게 오는가의 차이가 있을 뿐이나라.
 (이덕인이 분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한다.)²²⁾ (제1절)

조상 대대로 우애를 지키며 살아오던 집에서 이덕인은 동생 부부의 공
 격에 충격을 받아 화병으로 쓰러져 죽음을 맞는다. 왕납매의 물질에 대한

22) (云) 兄弟也, 父母遺留的言語你不聽, 今日要分另了家私, 死於九泉, 有何顏見亡
 父母之面. 兀的不氣殺我也! (正末氣倒科) (大旦哭科, 云) 員外, 精細着, 精細
 着! (李德義云) 哥哥, 精細着! 可怎生是了? (正末作醒科) (唱) 【賺煞尾】你常
 存着見官的心, 準備着告人的意. 則你那狀本兒如瓶注水, 俺親弟兄看成做了五眼
 雞. (搥旦云) 俺若欺負你, 頭上有天哩. (正末唱) 你也須索念着好門風祖亡留遺,
 今日爲他誰免開尋非, 卻不道湛湛青天不可欺. 你就那般瞞心昧已, 就這般生忿忤
 逆. (云) 人間私語, 天聞若雷, 休言不報也. (唱) 敢只爭來早與來遲. (作氣死下)

집착은 장유유서의 정신과 형제애를 파괴하고 가장의 목숨을 잃게 하며 결국 가정의 파탄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덕인이 죽고 난 후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이아진 : 서방님이 화를 못 참고 세상을 떠나실 줄이야. 서방님, 서방님 때 문에 가슴 아파 죽겠어요!

(아이와 함께 통곡하고 퇴장한다.)

이덕의 : 형님이 화병으로 단번에 돌아가실 줄이야. 형님을 잃어버렸으니 어찌하면 좋을까!

왕납매 : 여보, 울지 마요. 당신 형님은 이미 돌아가셨다고요. 형수님더러 아들 신노아를 데리고 나가서 따로 살면서 과부 수절이나 하라고 하세요. 하늘처럼 쌓인 집안의 재산이 모두 우리 둘의 것이 되었어요.

이덕의 : 맞는 말이야. 마누라, 형님이 이미 돌아가셨으니, 장례를 치르고 나면 이 집안의 재산은 모두 우리 것이 된다고. 마누라, 이제 마누라의 소원이 이루어졌어.²³⁾ (제1절)

이덕인의 죽음에 이아진과 신노아는 통곡한다. 그러나 왕납매는 재산을 차지할 수 있다는 사실에 행복해하고, 이덕의 역시 잠시 눈물을 흘리다가 아내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을 축하한다.

이덕인은 자신의 집에서 허망한 최후를 맞는다. 집이란 인간의 근원적 장소이고 모든 여정의 귀환점이다. 그러나 작품에 나오는 집은 더 이상 이러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 집은 조상 삼대가 분가를 하지 않고 머무르던 곳이며, 이덕인 부부가 결혼을 하고 아이 신노아를 낳아 기르던 곳이다. 그러나 이 장소는 머무름을 지속시키지 못하고 폭력과 죽음과 이동과

23) (大旦云) 誰想把員外氣殺了也。員外, 則被你痛殺我也! (同僚兒哭科, 下) (李德義云) 誰想哥哥一口氣氣死了, 丟下你兄弟一個, 可怎生是了也! (搵旦云) 李二休啼哭, 你哥哥已死了也。着嫂嫂領着神奴兒另住守寡。潑天也似家私, 都是俺兩口兒的。(李德義云) 說的是。二嫂, 哥哥亡逝已過, 則等他埋葬了, 這家私都是我的。二嫂, 今日稱了你的心願也。

떠남을 유발한다. 평안을 담보하는 장소이어야 할 곳이 폭력의 공간으로 기능하는 비극으로 인해 이덕인은 목숨을 잃고 만다.²⁴⁾ 이덕인에게 있어서 집이란 조상과 자신과 자식의 출생과 성장이 일어난 곳이자 결혼과 합가를 통해 세대를 이룬 친밀한 장소이다. 그러나 결국 이 집은 장소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는다. 이덕인에게 있어 함께 집을 지켜야 할 아우는 술에 취한 채 야만적인 아내의 말에 조종되어 폭력을 행사한다. 이덕인의 아내 이야진에게는 야만적인 왕남매에게 저항할 힘이 없고, 이덕인의 뒤를 이어 가부장제를 이어가야 할 아들은 어리고 나약하기만 하다. 왕남매의 폭력성과 야만성, 그리고 이에 가세한 이덕인의 협조로 인해 집은 공포의 공간으로 변질되어 사망사고의 현장으로 전락한다.

결국 남편을 잃은 이야진은 신노아를 이끌고 집에서 쫓겨나 새로운 장소를 찾아 떠난다. 이야진과 신노아는 그들이 머무를 수 있는 새로운 집을 찾아 이동한다. 이것은 살기 위한 도망으로, 이야진과 신노아는 새로운 집에서 마당쇠와 함께 거주한다.

이덕인이 사망한지 49일이 되는 날, 저자에 구경을 가고 싶다는 신노아를 데리고 마당쇠는 외출을 하게 된다. 마당쇠가 신노아에게 줄 꼭두각시 인형을 사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덕의는 혼자 있는 신노아를 발견하고 강제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다. 왕남매는 집으로 온 신노아를 보고 또 다른 범죄를 계획한다.

왕남매 : 나는 이씨 집안 차남의 아내예요. 시숙이 돌아가신 후로 동서가 신노아를 데리고 나가서 살고 있어요. 지금은 저 신노아 꼬맹이만이 유독 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저 녀석을 처치하고 싶은 마음뿐

24) 여기서 장소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이푸투안의 공간과 장소에 대한 이론을 빌리고자 한다. 이푸투안은 공간은 추상적이며 움직임이 허용되는 곳, 장소는 이동 중 정지가 일어나는 곳이라 하였다. 또 장소는 허기, 갈증, 휴식, 출산 같은 생물학적 욕구가 충족되는 가치의 중심지라고 정의했다. 집이란 인간의 생물학적 욕구를 채워주며 머무름이 일어나는 곳이므로 장소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예요. 그럼 재산이 몽땅 우리 두 사람의 차지가 될 테니까요.²⁵⁾
(제2절)

이덕의가 술에 취해 잠에 들자, 왕납매는 신노아가 받은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 살인 계획을 실천에 옮긴다.

왕납매 : 여보, 또 취했어요? 알았으니 주무세요. 그럼 이제 해야 할 일을 해볼까. 남편이 자는 동안 저 아이의 목을 졸라 죽여야겠어. 남편이 깨어나면 저도 나름 계획이 있지.
(밧줄을 가져와 신노아의 목을 조른다.)

왕납매 : 귀신이 되어 황천길로 가거라. 나를 원망하지는 말고.

신노아 : (버둥대고 흐느끼며) 숙모님, 숙모님은 저와 예전에도 원한이 없었고 근래에도 원한이 없지 않습니까? 숙모님, 왜 이리 모질게 대하시는지요! 어찌 제 목을 졸라 죽이려 하시는지요?
(왕납매가 신노아의 목을 졸라 죽인다.)

왕납매 : 녀석의 목을 졸라 죽여버렸군. 남편이 깨어나면 뭐라고 돌려대지?²⁶⁾
(제2절)

왕납매는 남편이 자는 사이 밧줄을 가져와 신노아의 목을 조른다. 아무런 죄가 없는 열 살의 신노아는 재물에 눈이 먼 숙모의 손에 짧은 생을 마감한다. 왕납매의 만행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잠에서 깨어난 이덕의가 신노아의 행방을 묻자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다.

25) 自家李二嫂便是。自從伯伯亡過已後，那嫂嫂領着神奴兒另住。如今止有神奴兒那小廝，還不稱我的意。我一心則待要所算了那小廝，家私便都是我兩口兒的。(李德義云) 二嫂我醉了也。我抱的神奴兒來，你好看孩兒，賣些好果子兒好燒餅兒與他吃，休驚嚇着他。我且歇息去。

26) (搵旦云) 李二，你兀的又不醉了也! 我知道，你睡去，我如今得做就做，趁他睡去，便將他勒死了。等他酒醒時，我自有主意。(做拿繩子勒俵兒科，云) 你往黃泉做鬼去，休要怨我。(俵兒做慌、哭科，云) 孀子，我和你往日無冤，近日無仇。孀子你好狠也! 怎下的勒殺我也?(搵旦做勒死俵兒科，云) 將這小廝勒殺了也，看李二醒來說甚麼?

(이덕의가 잠에서 깨어난다.)

이덕의 : 훌륭한 술이로고! 술은 취했지만 정신은 말짱하구나. 신노아를 안고 온 것 같은데, 어째서 보이지 않는 걸까? 여보, 아이는 어디 있소?

왕납매 : 신노아는 저기에서 자고 있어요. 보세요.

(이덕의가 신노아를 살펴본다.)

이덕의 : 이런 독한 여편네를 봤나. 아이가 왜 차가운 바닥에서 자고 있소? 아이가 이 침대에서 자면 좋지 않겠소? 부인, 어찌 이리도 모질단 말이오?

(일어나서 살펴보며) 조카야, 일어나서 침대에 올라가서 자거라.

(다시 살펴보며) 아이쿠! 여보, 당신 참 잔인하구려! 두 집안에서 신노아 하나만 보고 있거늘, 어찌 아이를 목 졸라 죽였소. 만약 형수님이 아이를 찾으면, 나더러 어떻게 돌려주란 말이오? 소송에 휘말리면 곤장을 면할 수가 없을 것이오. 나와 함께 법정으로 갑시다!

왕납매 : 흥! 당신이 안고 와서는 나에게 목 졸라 죽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가주이니 가주가 시키는 일을 제가 어찌 따르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당신이랑 법정으로 갈 테니, 거기서 당신이 한 마디를 하면 저는 두 마디를 하고, 당신이 두 마디를 하면 저는 열 마디를 할 거예요. 내가 힘껏 상대해 줄 테니, 법정으로 가보시죠.²⁷⁾

(제2절)

조카의 행방을 묻는 이덕의의 질문에 왕납매는 아이가 자고 있다고 대답한다. 이덕의는 바닥에 누워있는 신노아를 발견하고 아내에게 “아이가

27) (李德義做醒科, 云) 好酒也! 我醉則醉, 心上可明白. 我記得抱將神奴兒家來, 可怎麼不見他? 二嫂, 神奴孩兒在那裏?(搵旦云) 神奴兒在那裏睡哩, 你看去. (李德義做看俵兒科, 云) 你這個不賢慧的婦人, 怎下的着孩兒在冷地上睡着? 孩兒在這床上睡可不好? 你這婦人, 怎生這等不賢慧?(做起身看科, 云) 我兒, 你起身來床上睡去.(做再看科, 云) 哎喲! 二嫂, 你好狠也! 兩房頭則看着神奴兒一個, 你怎麼下的將他勒死了. 若是嫂嫂要神奴兒, 教我把個甚的還他? 這場官司, 少不的要打. 我和你見官去來!(搵旦云) 呸! 是你抱將來, 着我勒殺了他. 你是夫主, 你主的事, 我不依你! 我和你見官去, 到那裏你說一句, 我說兩句, 你說兩句, 我說十句, 我務要對在你身上. 我就和你見官去.

이 침대에서 자면 좋지 않겠소”라고 질문한 후 신노아에게 침대로 올라가서 자라고 권한다. 이 장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두 사람의 생활습관의 차이이다. 주지하다시피 漢人들은 입식 문화를 선호하고, 유목민족인 몽골인은 좌식문화를 선호한다. 왕납매가 신노아를 바닥에 눕힌 것은 그녀가 좌식문화에 익숙한 몽골인임을 암시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덕의는 바닥에 누워있는 신노아가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내를 고소하려 한다. 그러자 왕납매는 도리어 자신이 이덕의의 지시를 받아 아이를 죽인 것이라고 모함한다. 아이를 죽인 것으로도 모자라 그 죄를 남에게 돌리는 왕납매의 형상은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사이코패스의 모습에 가깝다. 그녀의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모습에는 몽골 여성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다. 몽골의 여인은 생활력이 강한 전사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데, 잭 웨더포드가 말하는 몽골의 여인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그들은 필요한 경우에는 활과 화살통을 집어 들고 전장으로 나가 조국과 가정을 지키는 일에 매진했다. 몽골 왕실의 여자들은 말을 잘 탔고, 전쟁에서 병사를 지휘했으며, 형사 사건에 재판관으로 참석했고, 광대한 영토를 통치했으며, 때로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남자들과 레슬링을 했다. 그들은 인근 문화권의 문명화된 여인들이 따르던 관습을 단호하게 거부했다. 가령 베일로 얼굴을 가리거나, 전족을 하거나, 은거지에 몸을 숨기는 행위 따위를 경멸했다. 어떤 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남편을 받아들였지만, 어떤 딸들은 직접 남편감을 골랐고 아니면 아예 남편을 거부했다.²⁸⁾

몽골의 여인은 강인한 생활력을 지녔고, 남존여비의 사상에 지배받지 않았다. 이러한 특성은 곧 중국인의 문화와 강렬한 대비를 이룬다. 중국인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이들과 싸워오면서 몽골 문화를 철저히 증오했고 두려워하는 민족이었다.²⁹⁾ 작품은 왕납매의 등장을 통해 이런 몽골의 문화

28) 잭 웨더포드 지음, 이종인 옮김, 《칭기스칸의 딸들, 제국을 경영하다》(서울: 책과 함께, 2012), 12쪽.

29) 잭 웨더포드 지음, 위의 책, 86쪽.

가 중국 사회와 가정에 깊이 파고든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왕납매의 형상에는 당시 이러한 몽골의 습속과 문화에 대한 공포가 투영되어 있다.

이아진과 신노아는 살기 위해 집을 떠나 새로운 집을 찾았다. 이들의 모습에는 몽골의 침략으로 인해 자신이 살던 터전을 떠나 이주하는 한인의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새로운 집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삶은 결국 신노아의 죽음이라는 파멸로 끝나고 만다.

이로써 각 인물의 형상이 상징하는 대상이 점차 구체화 되고 있는데, 폭력을 행사하는 왕납매는 무력으로 중원을 침입한 이민족 몽골인을 상징하며, 왕납매에게 동조하여 형을 괴롭히는 이덕의는 몽골화된 한인을 상징하며, 사고로 사망한 이덕인과 집에서 쫓겨난 이아진과 살해를 당한 신노아는 고통받는 한인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이어서 이어지는 신노아 살인 사건의 진범이 누구인지를 두고 벌어지는 왕납매와 이덕의의 소송은 몽골인과 몽골화된 한인 사이에 또 다른 갈등이 생겨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Ⅲ. 결론

세상이 태평할 때는 귀신이 인간과 함께 살지 않지만,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는 귀신이 인간이 함께 살아간다는 말이 있다. 예로부터 중국에는 수많은 귀신 괴담이 존재했는데, 귀신 이야기가 무대극의 형태로 본격적으로 발전한 시기는 元代이다. 세계를 지배하던 몽골족의 침입으로 인해 급속도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중원지역에 새로 유입된 몽골의 문화는 기존의 한인 문화와 충돌하면서 각종 문제를 파생했을 것이다. 작품은 각 인물들 사이에 존재하는 치열한 갈등을 통해 그 속에 민족적 갈등이 잠복해 있음을 그리고 그 갈등이 매우 치명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기에 귀신극이 등장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원대의 극작가들은 귀신의 등

장을 통해 당시 사회에 문제가 있음을 고발하였다.

작품은 한 가족의 분열과 고통을 야기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야만적인 왕남매의 악행과 범죄에서 기인하지만, 그녀의 이러한 악행과 범죄가 가능하게 하는 원인은 몽골의 문화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이에 천착하여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 작품은 몽골 이민족 치하에서 고통받는 가족의 참상을 알리고 그들에게 무한한 동정을 드러낸 반면, 사리사욕을 채우며 악행을 저지르는 범인 왕남매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작품의 주인공인 신노아는 어린아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약자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 작품은 이러한 사회적 약자의 표본이 되는 신노아가 죽임을 당하고 신노아가 몸담고 있던 가족이 해체되고 파멸되는 과정을 재현함으로써 당대 사회에 존재하는 폭력과 야만성을 폭로하고 있으며, 그 폭력과 야만성의 기저에 몽골의 문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신노아의 형상에는 무력이 숭상받는 원대 사회에서 힘을 잃고 살아가는 나약한 문인의 상징으로 보기에 무리가 없다.

특이한 점은 본 작품의 작자를 비롯한 다수의 원작극 작자들이 노골적으로 몽골인과 몽골문화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지 않고 매우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는 문자옥과 같은 위험을 피하기 위함이며, 둘째는 元末에 이르러 이미 몽골의 문화와 한족의 문화가 융합되어 그 경계를 명확히 나눌 수 없는 상태에 진입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작품 속의 이덕의와 왕남매의 관계에서도 볼 수 있듯이 漢人과 몽골인이 通婚을 통해 하나의 가족으로 융합됨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민족적 경계를 나눌 수 없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해 당시 가정과 사회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갈등의 기저에는 이민족에 대한 혐오가 자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 많은 작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원대 사회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김문숙. <13~14세기 고려복식에 수용된 몽고복식에 관한 연구>, 《몽골학》 17, 2004.
- 박환영, 《몽골 유목문화 연구》, 서울: 역락, 2010.
- 이푸투안, 윤영호, 김미선 번역, 《공간과 장소》, 서울: 사이, 2020.
- 잭 웨더포드 지음, 이종인 옮김, 《칭기스칸의 딸들, 제국을 경영하다》, 서울: 책과 함께, 2012.
- 잭 웨더포드 지음, 이종인 옮김, 《칭기스칸, 신 앞에 평등한 제국을 꿈꾸다》, 서울: 책과 함께, 2017.
- 케이트 밀레트, 정의숙·조정호 공역, 《성의 정치학》, 서울: 현대사상사, 1996.
- 郭建, 〈神奴兒大鬧開封府〉, 《文史天地》, 2014(09).
- 宋濂 編, 《元史》, 北京: 中華書局, 1976.
- 葉子奇, 吳東昆 注解, 《草木子》,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2.
- 臧晉叔, 《元曲選》, 北京: 中華書局, 2021.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ultural conflict between Chinese and Mongolian in the ghost plays of the Yuan Dynasty. Among them, paid attention to a *Shennuer* 神奴兒, which deals with the crack of patriarchy and the loss of humanity through incident accidents that occur at home and in society. Through this, it is intended to clarify the social critical value inherent in ghost plays, and at the same time, to use it as an opportunity to enhance the value of ghost plays that were

somewhat excluded from the existing drama research. This study is part of a work to examine the substance of the fear inherent in 15 kinds of ghost plays in the Yuan Dynasty. The author of the work is unknown, and the creation period is estimated to be in the late Yuan Dynasty. The background of the work is Song Dynasty, but it can be said to be a work that fundamentally satirizes society. This work is a family drama that exposes the problems existing in the family at the time in that it is set in the family, and this family is the most fundamental basis of society, so it is also a social drama that shows the problems of society at the time.

Keywords: 신노아(Shennuer), 문화적 갈등(cultural conflict), 민족 갈등(ethnic conflict), 민족 혐오(hatered of barbarian), 원잡극(Yuan opera), 귀신극(Ghost opera)

